

# 광산구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총력”

### 김삼호 구청장, 안전 경제·행복 정책 집중...시민행복 토대 마련

“앞으로 남은 1년은 코로나 이후 세상을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삼호(사진) 광주 광산구청장은 7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남은 기간 ‘탈(脫) 코로나’와 ‘지혜로운 내 삶의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8대 핵심 전략으로 ▲사회방역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산업·골목상권) ▲사람과 환경 중심사회 ▲삶을 지키는 스마트 포용복

지 ▲일상 속 문화향유 보장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성장 ▲따뜻한 골목자치 강화 ▲디지털 행정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행정조직 내부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모든 부서, 공직자가 나서 전문가 그룹과 교류하고, 학습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역할과 추진 과제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김 구청장은 “질서 있게 일상 회복을 준비함과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탈 코로나’와 ‘지혜로운 내 삶의 행복’을 향한 세부 설계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3년 성과에 대해선 “내 삶이 행복할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구정 목표로 세운 민선 7기 광산구는 안전·경제·행복을 핵심 근간으로 삼아 지난 3년을 달려 왔으며 “시민과 함께 추진한 안전·경제 정책은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건디는 보훈막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 대표 사업은 광산경제백신회의 구성이다. 김 구청장은 이와 함께 행복도 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하는 행복 정책을 통해 관념에 머물던 행복을 시민 삶에 구현하고,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혁신 모델로 풀뿌리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과 기본소득의 미래를 제시한 광산시민수당, 시민과 사회면역력을 높이는 ‘행복으로 걷기광산’ 프로젝트도 민선 7기를 대표하는

광산구의 혁신 정책으로 내놨다.

김 구청장은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상상력을 총동원해 변화를 주도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세밀한 행정을 펼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선 7기 광산구의 핵심인 안전, 경제, 행복, 환경 정책의 수준을 높여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도시 광산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중효 행정부시장 주재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35개 부서 70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 광주시, 양성평등 실현 성별영향평가 나선다

### 평가위원회 열고 70개 사업 선정...재난안전교실 운영 등

광주시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70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나선다. 광주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35개 부서의 70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 대상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지원사업 ▲소방공무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실 운영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성평등기본법(옛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2005년부터 해마

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135개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접수해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와 논의를 거쳐 일자리·4차산업·청년·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86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와 컨설팅을 추진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70건의 사업을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효 행정부시장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선정한 70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정책의 수혜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 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예진표 색상 구분 백신 오접종 예방

광주 광산구가 국내 도입 백신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오접종을 예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료환자 및 접종자 동선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백신별 접종 공간을 공동 사용하면서 오접종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오접종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가 오접종을 막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는 바로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백신 종류별 예진표 색상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해 혹시 모를 혼선을 막자는 것이다. 광산구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흰색, 안

## 아스트라제네카 흰색·화이자 파랑·모더나 분홍·안센 노랑



광산구가 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색상구분 예진표.

센은 노란색, 화이자는 파란색, 모더나는 분홍색으로 구별한 예진표를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 관역별 전담부서를 지정해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접종동선, 접종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백신관리, 이상반응

조치사항 등도 수시로 살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3분기부터 5종 백신 도입과 함께 접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조사-데이터 분석-정책 반영 체계 확립

### 광산구, 행복영향평가제...과학적 정책으로 시민행복 실현

광주 광산구의 민선 7기 성공 정책을 모두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 행정’이다. 광산구는 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구정 운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광산구는 실제 민선 7기 3년간 구민의 불안,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민선 7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행복정책이다.

광산구는 전담 조직인 행복정책관을 신설하고, 100개 행복지표를 개발해 지난해 5월 시민행복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반영해 올해 ‘행복으로(로) 걷기광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범용 CCTV 설치 등 5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대

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 연령, 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 7기에서 새롭게 선보인 복지, 경제 정책의 배경에도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민국 복지의 틀을 깬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가 대표 사례다. 늘 행복 프로젝트는 2019년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영구임대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출발점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소상공인 1188명을 대상으로 상권 매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에는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안내 및 대상자 조사를 하면서 생활실태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는 홀로 살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매년 시민행복도 조사를 실시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시민행복도 조사 분석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하고, 모든 부서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행복영향평가제도를 구축해 나가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행복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자치행정을 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도 조사 결과는 광산구정의 방향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